박원자의 母情佛心 15 텐진 빠모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서구 여성 처음으로 티베트 스님이 된 텐진 빠모 스님은 19세 독일 여행 중 읽은 〈흔들림 없는 마음〉 통해 불교에 귀의했고, 이는 출가로 이어졌다. 이를 지켜본 어머니는 묵묵히 응원했다. 생의 마지막에도 "내생에 너의 어머니가 돼 너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내생에도 네 어머니 되어 기도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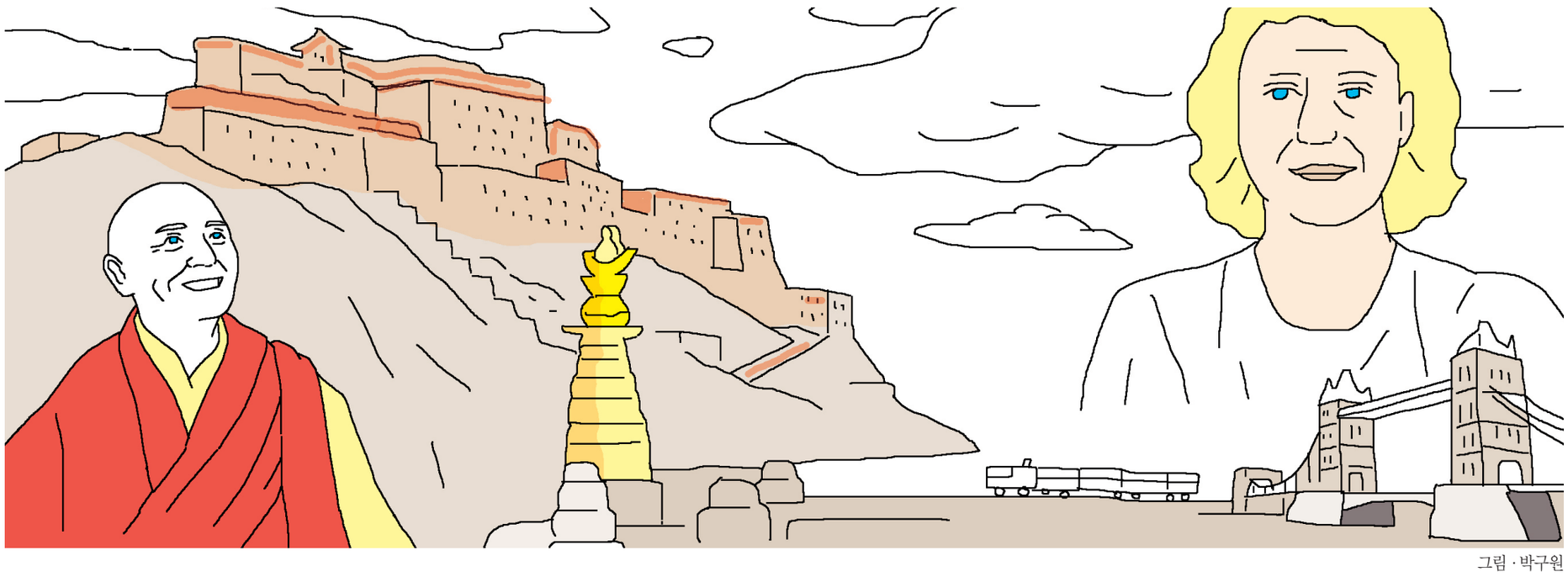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서구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티베트 스님이 된 텐진 빠모 스님이 한국에 온 적이 있다.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당에서 법문을 한다기에 갔었다. 예순을 갓 넘은 그녀는 붉은 가사를 두르고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법상에 앉아 지혜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 했다. 법당을 꽉 채운 청중 모두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고 한 여성이 일어나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질문을 했다.

"저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으로 지금 목사가 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살생과 폭력적인 모습의 현재의 기독교를 보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 수 년 동안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수행을 했다는 스님의 대답이 몹시 궁금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종교가 살생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사랑과 지혜와 자비가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지, 중간의 성직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울먹이며 물었던 질문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는 모르나 나에게는 그녀의 대답이 대단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새롭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법문을 경청해준 청중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 마음 속에 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웃어주세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그녀가 발견한 성불에 이르는 방법은 '친절과 미소, 마음공부' 같아 보였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어머니가 궁금했다.

50여 년 전, 19세의 영국 소녀가 여행 차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빌린 세 권의 책 가운데 하나였다. 표지에 붓다의 모습이 그려있는〈흔들림 없는 마음(The mind unshaken)〉이라는 작은 책을 반 쯤 읽고 있던 소녀는 곁에 있던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불교신자예요."

어머니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멋지구나. 다 읽고 나서 네가 아는 대로 불교에 대해 말해주렴."

어머니는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의식(본래마음)은 계속된다고 믿어왔고, 인간은 본디 완벽하고 그 본성도 완전하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 산다고 믿고 있던 딸이었다. 또 인간이란 원래 완전한 본성을 다시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딸은 엄마와 성직자들에게 묻곤 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한결같이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친절하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총명한 딸은 선함과 친절은 기초가 되는 토대일 뿐 완벽함이란 저 두 가지를 넘어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딸은 다양한 종교를 탐구했고 13살에는 코란을 읽을 시도를 할 정도로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화두를 풀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실존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르트르와 카뮈의 책을 섭렵했다. 그러더니 드디어 길을 발견했다며 외친 것이다. 불교도가 되었다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붓다가 그 길을 아주 오래전에 제시해놓았다고 외쳤다.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불교 수행에 대해서 쓴 그 한 권의 책이 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듯했다.

독일 여행에서 돌아온 딸은 불교 관련 책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버리는 것임을 알았다"며 옷장의 옷들을 다 가져다버렸다. 딸은 화장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도 이별했다. 책을 읽으면서 승려들이 입는 옷을 상상했는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윗옷에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다녔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6개월이 지났고 매사 낙관적이며 심령술에 밝았던 어머니는 딸을 따라 불교 신자가 되었다.

도서관에 근무하던 딸은 런던에 있던 스리랑카 불교사원을 종종 찾았고 다른 불교도들과 어울려 수행을 했다. 붓다를 사랑했고 붓다처럼 되고 싶어 하던 딸은 드디어 스무 살이 되던 해 인도로 가는 배를 탔다.

집을 떠나기 전 딸이 선언했다. "엄마, 저 인도로 가겠어요."

딸이 두 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두 남매를 키웠던 어머니는 생선을 다듬던 칼을 잠시 내려놓은 채 20살의 맑고 아름다운 딸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렴. 언제 떠나려고 하니?"

〈흔들림 없는 마음〉 읽은 英소녀
불교 귀의 결심… 출가로 이어져
묵묵한 어머니 응원, 딸에 큰 힘
자녀사랑 통해 깨달은바 선지식

1년 후 수계를 한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 출가를 알렸다. 긴 머리를 말끔히 밀어버린 모습을 본 어머니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다. "털이 깎여나간 내 가여운 어린 양."

그곳에서 그녀는 스승 캄트룰 린포체를 만났다. 그리고 수 천 명의 수도승 들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그녀는 서구 여성 최초로 수백 년 동안 여성에게 금지된 영역으로 존재해왔던 티베트의 수도원 제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12년 동안 학업에 정진하다가 집중 수행을 하기 위해 히말라야의 최북단 라홀로 떠났다. 그곳은 히말라야산맥 1만 2천 피트의 고도에 위치해 일 년 중 8개월은 폭설이 내렸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동굴 수행 12년을 비롯해 총 18년 동안을 은거 수행을 했다.

오로지 홀로 기나긴 세월 동안 수행한 끝에 그녀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나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성을 탐구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성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차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바로 착각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식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록 깨달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딘가 가야할 곳이 있고, 무언가 성취할 것이 있다는 생각은 모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착각에 불과해요."

극한의 수행을 하고 있는 딸에게 어머니는 편지를 보내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잠시 휴가를 내서 영국에 들리면 어떻겠니?"

어머니는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딸을 도왔다. 생선가게 일을 그만둘 때까지 매달 용돈을 보내주었다. 딸은 10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뵙게 위해 영국에 머물며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인도를 좋아했다. 인도로 가서 10개월 정도 딸의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며 티베트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타라(자비로운 여성 붓다)를 흠모하기도 했다. 음식이 맞지 않아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딸처럼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텐진 빠모 스님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인도에서 수행한지 2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3년 동안 은거 수행을 하기 위해 동굴로 가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 런던으로 갔다. 출가 후 두 번째 런던행이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와 40세가 넘은 딸은 반갑게 해후했고 다정하게 지냈다. 딸이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가 고백했다.

"아무래도 너와 이승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구나. 다음 생에도 다시 네 엄마로 태어나서 네가 영성의 길을 계속 가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수행자인 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지지의 표현이었다.

텐진 빠모 스님의 책을 번역한 세등 스님은 두 모녀가 헤어지는 이 대목에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끝내 출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어머니가 '내생에는 너와 도반으로 만나 함께 수행하고 싶다' 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1년 뒤, 텐진 빠모 스님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위독한 상황이니 집에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3년 안거수행에 들어간 스님은 자신의 맹세를 저버릴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집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 편지쓰기가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설령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동굴을 떠날 수는 없는 처지였어요."

다시 1년 뒤 어머니가 78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를 받았다. 텐진 빠모 스님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머니들이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으면서도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제 어머니도 그런 분이었어요. 불법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동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사랑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넓혀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자식을 통해 광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모든 존재에 대해 사랑을 펼쳐가는 기반으로 이 경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사랑을 배우는 존재가 어머니 보살인 것이다. 〈작가〉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귀병에 퉁퉁 부어오른
5개월 아기의 사투

쓰나미로 터전 잃은 기달씨 부부 첫 아이 유산 후 얻은 쌍둥이
2개월 만에 발병…간병 위해 휴직, 병원비만 매달 3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